

기독교 예술 비평, 이대로 좋은가?

- 로마노프스키의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

진환주*

- I. 서론
- II. 문화에 대한 성경의 관점
- III. 경쟁에서 동반자로
 - 1. 예술 자체의 목적 인정
 - 2. 예술성 있는 기독교 문화
- IV. 고급예술과 대중 예술의 구별, 가능한 가 불가능한 가
 - 1. 고급과 대중 예술의 구별이 안고 있는 문제
 - 2. 고급과 대중문화의 구별, 찬송가의 경우
- V. 결론

I. 서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포스트모던시대, 물질만능시대이다. 이 시대의 가난하고 학대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종교인보다 상인, 은행가, 사업가, 기업가를 존경하고 의지한다. 반면 기독교는 그들만의 울타리에 갇혀 세상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고 관심에서 멀어지던 교회는 문화를 문제 해결

* 숭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의 대안 중 하나로 삼았다. 예술을 소통의 통로로 여기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는 생존자체가 당면과제이기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몇몇 규모가 큰 대형교회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라는 벽을 만들어 오히려 예술 활동에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그들은 예술과 문화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예술과 배척해야 할 문화를 구분했다. 그리고 배척해야 할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는 기독교와 멀어지게 되었다.

이 글은 여기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는 예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예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모든 예술에 대해 기독교 신앙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가?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건한 예술이 있고, 인정할 수 없는 악한 예술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이러한 중요한 물음에 답을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통찰이 필요하다.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의 바탕 없이 상식에만 의존하여 논할 때 공허한 메아리가 되거나,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감정적인 주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예술에 대한 성경적 관점 혹은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기독교와 예술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구별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로마노프스키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찬송가의 예를 들어 고급과 대중예술의 구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찰해 볼 것이다.

II. 문화에 대한 성경의 관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에 대한 기본 명제를 알아보자. 우선 신응철은 예술에 대한 기독교적 논의를 다룰 때 직면하는 두 가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술작품 및 예술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4-5절에 근거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이 성경구절에서 본다면 새긴 우상을 만드는 행위, 즉 조형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행위는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예술창작 활동에 대해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다른 하나는 역시 성경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는 레위기 26장 1절에 근거하여 계명이 금하는 것은 조형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특히 예술작품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예술작품의 창작의 의도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에 있기 보다는 인간 자신을 위한 것에 있을 때 잘못이라는 것이다. 즉 예술작품과 문화 활동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기독교적 예술비평은 전적으로 후자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¹⁾

창세기에서는 문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 창1장 28절은 ‘문화명령’의 성경구절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표현을 문화 창조의 명령으로 이해한다. 문화란 이러한 명령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에게 창조의 과정을 이어가는 임무를 맡기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문화에 접근하는

1) 신응철, 『기독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6), 55-57쪽.

기독교의 기본 전제이다.²⁾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삼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조세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의무와 책임을 지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청지기 임무'와 '문화'는 상호 역관된 개념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열쇠이다. 청지기는 히브리어에서 '집을 관장하는' 사람,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위와 힘을 부여 받은 책임자이며 통치자이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인간의 소명을 의미하는 것이다.³⁾

청지기로서 인간의 첫 문화행동은 이름을 짓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창 2장 19절에서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는 의미 없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상상력'도 필요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적절한 표현의 '언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는 예술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⁴⁾

Ⅲ. 경쟁에서 동반자로

로마노프스키는 교회가 연극을 대하는 태도에서 통찰을 발견한다.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연극을 경멸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극장이 교회 회중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극은 거짓과 꾸밈으로 가득 차 있어 악마의 일터와 같다고 매도한다는 것이다. 로마노프스키는 교회의 이러한 태도의 가장 큰 핵심을 '경쟁심'이라고 보았다.

교회가 연극에 대해 경쟁심을 가지는 이유는 연극이 사람들에게 종교

2) 로마노프스키,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서울: IVP, 2004), 47쪽.

3) 윗글, 50쪽.

4) 신응철, 『카시러의 문화철학』(서울: 한울출판사, 2000), 제 3장 참조

와 같은 감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을 통해 종교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사람은 예배에서 느끼는 감정과 흥분의 상태에 도달한다. 심지어 교회가 주는 영적인 체험과 예술이 주는 미학적인 체험 사이에 놓인 경계선은 매우 미세하여 분간하기 힘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경계해 왔다.⁵⁾ 모든 예술에 대해 신앙적 입장을 취해야 했고, 또 판단해야 했다.

1. 예술 자체의 목적 인정

기독교는 예술에 대하여 경계와 판단의 자세로 볼 필요는 없다. 즉 흑백논리로 볼 이유는 없다. 예술에 대하여 억지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로마노프스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 삶의 일부로 정해놓으신 미학적 체험은 정당한 것이며, 이는 창조 세계의 미학적 특징과 그에 대한 견실한 비판적 평가를 심화시켜 가는 창조적 노력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진다.” 신앙의 관점에서 예술을 경계의 눈으로 보기 보다는, 예술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고 하셨다. 영적인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으셨다. 피조물이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그 자체를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것이다. 그자체로 '보기에 아름다움'이란 것이 하나의 목적과 기쁨이 되는 것이다.

대중예술을 즐기고 기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대중 예술

5) 로마노프스키, 위의 책, 96-99쪽.

을 영적 사건으로 꼭 바꿀 필요는 없다. 이것은 대중 예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자체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노프스키는 대중 예술을 미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사나 교회 성도'의 자격이 아닌, '예술가이자 관객'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예술은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그것들을 성찰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대중예술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래서 로마노프스키는 대중 예술을 '문화적'인 가치와 관점에 내용을 제공하는 '문화적인 재현', 혹은 '텍스트' 즉, '실재의 지도'(maps of reality)⁶⁾로 보고 있다.

2. 예술성 있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예술이란 이러한 심미적인 예술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대중예술은 어떤 특징을 지녀야 하는가? 로마노프스키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 예술 활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예술작품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의 관점으로 예술작품의 주제와 성격을 규정하고, 또한 신앙의 관점으로 예술에 접근하고 구성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작품을 몇 가지 예로 들어 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예로 들면, 저자는 영국 국교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책을 썼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풀어쓴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다. 복음적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이 책은 영국 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6) 로마노프스키, 윌글, 79쪽.

그리고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이며 작가인 C.S. 루이스의 작품 중에 『나니아 연대기』를 들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요소가 절묘하게 녹아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연간 600만부가 팔릴 정도로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화화되어 세상에 더욱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영화화된 그의 소설은 『캐스피안 왕자』가 있다. 이것은 타락이후 종교회복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마법사의 조카』는 나니아의 창조와 악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십자가 수난과 부활, 『말과 소년』은 불신자의 부르심과 회심,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영적인 삶, 『은의자』는 어둠의 권세에 대항한 끊임없는 전쟁, 『마지막 전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다. 글 속에서 신앙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문학 작품들이다.

한국 고전 문학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홍길동전』을 예로 들 수 있다. 허균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후에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며, 또 기독교 문헌을 가지고 귀국했다는 문헌이 있다고 한다. 『춘향전』 역시 종교박해를 당하던 서학교도들과 예수 재림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춘향은 박해 받는 신도요, 이도령은 구원자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기독교적 구원자라고 보기도 한다.

IV. 고급예술과 대중 예술의 구별, 가능한 가 불가능한 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술과 오락을 구분하려는 습성이 있다. 즉 예술이라고 다 같은 예술이 아니라 고급예술이 있고, 오락성을 갖춘 대중문화가 있어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고급문화나 전통적인 순수 예술, 회화와 조각, 연극, 교향악과 오페라, 시, 그리고 특정한 유형

의 문학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반면 영화, 대중문화, 텔레비전, 연애소설, 탐정소설 등은 오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베토벤과 바흐, 셰익스피어, 디킨스, 렘브란트, 르누아르, 피카소의 작품은 예술이다. 반면에 마돈나, 스프링스틴, 루카스, 스피버그 등의 작품은 오락이다. 이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윤이상, 백남준, 조수미, 정명훈의 작품은 고급예술이고, 조영남, 나훈아, 남진, 이미자의 작품은 대중문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동조하여, 예술과 문화를 바라볼 때 등급을 매기고 선을 긋고 있다. 고급 예술은 뚜렷한 역할과 목적에 기반을 둔 대중 예술보다 더 고매하고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급문화를 구원의 길로 생각하는 관념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다. 로마노프스키는 고급문화를 추구하면 '신성의 분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고급문화는 경건하고 대중문화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예술 중 고급예술은 즐길 수 있지만, 대중문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클래식이라는 음악은 경건한 음악이니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되고,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가요는 악한 것이니 성도들이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이다.

1. 고급과 대중 예술의 구별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고급예술,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화로 선을 긋고 등급을 매기는 것에는 큰 오류가 있다. 고급예술, 혹은 경건한 것으로 알고 있던 것 중에 대중문화에서 출발한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고급문화의 상징인 셰익스피어는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서 대중예술가였다. 또 찬송가 145절에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는 수난절에 부르는 아주 엄숙하

고 경건한 찬송이지만, 원래 그 곡은 연애노래였다. 16세기 말 독일의 하슬러가 작곡한 “내 마음에 안정이 없네, 그 처녀 때문 일세”라는 노래를 변형한 것이다. 이 노래는 5절까지 있는데, 그 중 1-2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절. 내 마음이 안절부절이네 그 처녀 때문일세
나는 아주 안절부절하고 있네 내 마음은 중병이 들었네
낮이고 밤이고 안식이 없고 언제나 탄식뿐일세
한숨과 눈물뿐이고 슬픔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네

2절. 아 만일 그녀가 내게 묻는다면, 그 원인이 뭐냐고
왜 내가 탄식하고 있느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네.
그녀가 내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주었다고.
그녀의 마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내가 곧바로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⁷⁾

이 곡을 17세기 독일의 목사요 찬송 작가였던 파울 게하르트가 가사를 붙이고 곡 형식을 조금 바꾸어 찬송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고급예술과 대중문화라는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모순이며 왜곡이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커다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고급이나 아니냐는 선긋기는 예술 작품 그 자체의 성격보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미국의 경우, 부유하고 교양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미국 앵글로 색슨계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기를 원했고, 20세기의 전환기에 미국으로 이주해온 일반대중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유럽에서는 18세기 비엔나의 사회귀족들은 자신들이 후원한 작곡가의 음악작품의 ‘위대함’을 찬양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7)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서울: 한들, 1995), 48쪽.

지켜나갔다. 반면 근로자 계급과 중산계급의 극장과 댄스 홀, 영화관에 드나들었다. 그래서 ‘문화’를 특권계급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그들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다.⁸⁾

소위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고급 예술은 자체적 목적을 위해 생산되었다. 그래서 고급 예술은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대중 예술은 그것이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상업적이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다.⁹⁾ 반면 고급예술은 대중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대중예술은 사람들에게 다양하면서도 고급 예술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예술적 체험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예술은 상업적인 생존 능력에 의해서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기’에 편승되어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렇지만 분명 고급문화 뿐만 아니라 대중 예술 작품 중에도 진솔하게 삶을 탐색하고 높은 수준의 미학적 탁월함을 보여 주는 대중 예술 작품도 많이 있다.

2.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 찬송가의 경우

여기에서 위에서 잠시 언급한 찬송가의 예를 들어, 전통예술과 교회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자. 대중적인 찬미는 개인적인 종교 경험적 차원에서 의미는 있지만, 교리와 공중예배 관점에서 무가치하다는 주장은 한국 땅에서 이미 약 반세기 전에 있었다.¹⁰⁾ 어거스틴에 의하면 감성은 이성을 따라야 하는데, 감성을 용납하면 감성이 이성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고상하고 경건해야지 선정적이거나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것이다.¹¹⁾ 그리고 그때의 주장이 아직까지 한국

8) 로마노프스키, 윗글, 104쪽.

9) 윗글, 107쪽.

10) 박봉배, 「교회 음악 팝송화에 대한 신학적 비판」, 『기독교사상』, 1973년 3월호, 통권 제 178호, 86쪽.

교회의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 찬송가 〈어서 돌아오오〉,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등을 작곡한 박재훈은 최근 이러한 말을 했다. “찬송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적인 예술입니다. 따라서 가사나 곡 모두가 영혼의 외침을 담아야지, 글재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¹²⁾ 주장의 일부는 옳은 것이지만, 여전히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다고 부르는 찬송가에는 서양 국가들의 ‘민요’가 많이 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스웨덴 민요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와 “하늘가는 밝은 길이”는 스코틀랜드 민요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신자 되기 원합니다.”는 미국 민요와 흑인 영가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민요는 찬송가가 없는가? 몇 년 전에 한국교회의 큰 사업 중 하나가 찬송가 개편이었는데, 새로 나온 찬송가에도 민요는 없었다.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 기행』(이지출판, 2007)의 저자 이정면은 1999년 미국에서 아리랑 곡조의 찬송가를 발견했다고 한다. 곡명은 “Christ, You are the Fullness”이고, 작곡 란에는 ‘Korean melody’이라 되어 있었고, 작사자는 ‘버트 폴먼’이었다. 아리랑 곡조를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이유를 물었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찬송가에 쓰게 되었다.”고 했다고 한다. 외국에서 격찬한 아름다운 멜로디 ‘아리랑’을 미국에서는 찬송가로 쓰는데, 한국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즉 서양민요 찬송가만 부르면서 경건한 고급예술, 기독교 문화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¹³⁾

한국음악 즉 국악에는 민속음악과 정악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음악 장르를 교회에서 찬양으로 부를 때 접목을 시킨다면 당연히 민속음악의 장르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민속음악의 장단 중에 ‘굿거리장단’과 ‘세마

11) Erik Poutley, *Church Music and Theology*, Philadelphia: Muhkenberg Press, 1959, 63-64쪽.

12) 『기독교신문』, 2008년 1월 27일, 3면.

13) 문성모, 「예배음악과 민족음악」, 『기독교사상』, 1995년 5월호 통권 437호, 258쪽.

치장단'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장단은 어느 국악 찬송에도 잘 어울리는 장단이다. 그런데도 '굿'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당과 무속신앙과 연결 지어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굿 또는 무당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국악 악기도 마찬가지이다. 굿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악기일 뿐이다.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서양음악이 함께 들어왔다. 그러다보니 별다른 의문과 의식 없이 교회음악은 서양음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위 민족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민족의 정서와 함께하는 전통음악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서양음악만을 고수하려는 자들은 한국음악을 평가절하하면서 자신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간혹 교회에서 한국음악에 관심을 갖는 자들조차 깊이 있는 접근을 하기보다 단순 놀이문화 위주의 호기심차원의 접근이 다반사이다.

최근에는 교회음악의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일반교육에 대한 환경도 좋아져서 전통음악 교육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어느 듯 사회 환경에서는 한국음악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때는 지나간 것 같다. 이제는 교회의 몫이 남았다. 다행히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교회 지도자들 위주로 이러한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음악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가 부러워 할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데 우리 모두의 열의와 관심과 지원을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¹⁴⁾

14)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8-9쪽.

V. 결론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찬송가를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독교는 예술에 대한 경쟁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간파하였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동반자로 예술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 그 자체에도 '심미적'인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영적인 해석을 하려는 경계심을 풀고 예술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럴 때 기독교 예술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다. 예술 그 자체의 심미적인 목적과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함께 어우러질 때 훌륭한 기독교 예술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 예로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한 몇 가지를 언급했다.

그리고 예술에 등급을 매기고 선 굵는 것을 경계하며 지적했다. 고급 예술은 미국과 영국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계급을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비록 대중문화는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구조의 한계는 있지만, 소위 고급 예술 못지않은 대중작품들도 많이 있다. 특히 기독교는 예술에 등급을 매기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경건한 찬송가들 중에 대중음악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의 민요로 된 찬송가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요로 된 찬송가를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종교와 삶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또 종교적인 것과 거리가 먼 음악조차도 교회의 음악으로 만들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에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예술 그 자체의 심미적 목적을 가지고 예술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둘째 예술을 바라보되 고급과 저급의 구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두 주장은 그동안 기독교 예술이 안고 있던 문제였으며, 여전히 세상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했던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찬송가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기독교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피조세계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국문 초록〉

기독교 예술 비평, 이대로 좋은가?

기독교는 그동안 예술에 대해 경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술이 사람들에게 종교와 같은 감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술에 대하여 경계와 판단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인간 삶의 일부로 정해놓으신 미학적 체험은 정당한 것이며, 이는 창조 세계의 미학적 특징과 그에 대한 건설한 비판적 평가를 심화시켜 가는 창조적 노력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진다. 기독교예술도 예술의 심미적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급예술과 오락성을 갖춘 대중문화를 구분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선 굿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예술의 특징보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앵글로 색슨계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급예술을 구분했다. 유럽에서는 18세기 비엔나의 사회귀족들은 자신들이 후원한 작곡가의 음악작품의 '위대함'을 찬양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지켜나갔다.

또 고급예술, 혹은 경건한 것으로 알고 있던 것 중에 대중문화에서 출발한 것이 많이 있다. 찬송가의 경우, 외국의 대중문화가 경건한 찬송가로 변모한 경우가 많이 있다. 반면 우리의 대중문화가 찬송가로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외국의 민요로 된 찬송가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요로 된 찬송가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Key words: 기독교 예술, 고급예술, 대중문화, 심미적, 민요

〈Abstract〉

Christianity Criticism of Art, is proper, as it stands?

Christianity has had a competitive attitude against art so far, because art gives such an inspiration as religion does. However, Christianity doesn't need to see it with an eye of caution and criticism. Aesthetic experience is right as God provides it as a part of man's life, and it becomes richer by a creative effort which is deepen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world and a sound critical appreciation for that. Christianity art also should be corresponded with the original aesthetic purpose of art and be inspired by Christianity faith.

Generally, people have the habit of distinguishing art from entertainment. That is, all of art is not the same kinds: there are two kinds of high class art and popular culture equipped with entertainment, so they divide those into two as well. Christians also follow this, and when they see art and culture they give grades and draw the lines. But here is a big error. This distinguishment comes from a historical background, not from artistic characteristic. In case of America, its Protestantism from Anglo-Saxonorigin distinguishes high class art in order to justify their social position. In Europe, social nobility from 18th century Vienna kept their cultural superiority by praising "greatness" of musical works of composers whom they

sponsored.

Among high class arts or things which are known to be devout, there are many started from popular cultures. In case of a hymn, there are many examples which were changed from foreign popular cultur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ew examples which our popular culture has been changed to a hymn. Now, furthermore this is time that we should put some effort to make a hymn made from our folk song, rather than only sing a hymn made from foreign folk songs.

Key words: Christianity art, high class art, popular culture, aesthetic, folk song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김영한 편, 『한국기독교와 예술』, 서울 : 품만, 1987.
-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서울: 한들, 1995.
-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 신응철, 『카시러의 문화철학』, 서울: 한울출판사, 2000.
- _____,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 _____, 『기독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6.
- 이정면,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 기행』, 서울: 이지출판, 2007.
- 최태연, 송태현, 이경직, 이경재, 김경진,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서울: 북코리아, 2008.

신문

- 『기독교신문』, 2008년 1월 27일.

번역 단행본

- H. R. Rookmaaker,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예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7.
- 토트, 김문환 역, 『20世紀 기독교와 예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윌리엄 로마노프스키, 정혁현 역,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중문화 읽기』, 서울: IVP, 2004.
- 윌리엄 로마노프스키, 신국원 역, 『대중문화전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학술논문

- 김흥기, 「대중문화와 기독교 미학 - 윌리엄 로마노프스키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철학연구』, 제 1권, 2004년, 221-239쪽.
- 문성모, 「한국교회와 예배음악」, 『기독교사상』, 1995년 4월호 통권 436호.
- 문성모, 「예배음악과 민족음악」, 『기독교사상』, 1995년 5월호 통권 437호.

- 박봉배, 「교회 음악 팝송화에 대한 신학적 비판」, 『기독교사상』, 1973년 3월호, 통권 제 178호, 80-86쪽.
- 신국원, 「대중문화연구의 지평과 개혁주의 과제」, 『신학지남』, 2004년 가을호, 통권 제 280호, 214-244쪽.
- 신응철, 「기독교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중심의 상실에서 중심의 회복으로-」, 『기독교철학』, 제 4권 1호, 49-72쪽.
- 이보철, 「국악과 찬송가의 토착화」, 『기독교사상』, 1994년 9월호 통권 제 429호, 53-62쪽.
- 이경직, 「문화콘텐츠와 기독교 철학의 만남」, 『인문콘텐츠』, 제9호 2007년 6월, 237-258쪽.
- 최태연,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 신앙으로 바라보기-」, 『신앙과 학문』, 제 8권 1호, 2003년, 93-118.

영문 단행본 및 논문

- Erik Poutley, *Church Music and Theology*, Philadelphia: Muhkenberg Press, 1959, 63-64쪽.
- Sang-Ryol Lee, "A Study on Mission cultural art and Education", PAMANTASAN NG LUNGSOD NG'MAYNILA (2005).